



울산의 산업현장 견학을 통해 ‘아산정신’을 체험하고, 장학생들의 화합을 다지는 ‘만남의 장’에 참가한 장학생들이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면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표시하고 있다.

## “아산장학생의 본분 깨닫고, 자부심 심어준 뜻깊은 행사”

글 **안종권** 아산재단 복지사업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만남의 장’ 첫째날에는 경주의 불국사와 안압지 등을 둘러보는 문화체험과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산정신 특강’ 등이 진행됐다(왼쪽부터).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여름, 145명의 아산장학생들이 ‘만남의 장’ 참가를 위해 울산에 모였다. 2013년 시작한 만남의 장은 울산의 산업현장 견학을 통해 ‘아산정신’을 체험하고, 나눔 교육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는 아산장학생의 본분을 일깨우며, 장학생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자리다.

2017년 ‘만남의 장’은 7월 13일과 14일, 1박2일 일정으로 울산과 경주에서 진행됐다. 장학생들은 아산재단에서 마련한 버스를 이용해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출발하여 숙소인 울산 대학교로 모였다.

울산대학교는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가 젊은 시절 어느 대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돌을 지고 나르면서 느꼈던 배움에 대한 갈망을 채우고, 국가 발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학교로, 이러한 설립 배경을 장학생들도 느낄 수 있도록 행사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장학생들은 기숙사에 짐을 풀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재단의 설립취지와 사회복지, 의료복지, 학술연구, 장학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장학생들은 “아산재단에서 진행되는 의미 있는 일들을 알게 됐고, 특히 장학사업에 인재 양성은 물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정주영 설립자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산정신’ 특강이 이어졌다. 정 교수는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가 부자였지만, 소박하고 꾸밈없는 분이였다”면서 설립자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정 교수는 “여러분들이 아산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산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금년 초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들에게 나누어준 설립자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를 꼭 한 번 읽어볼 것을 당부했다.

##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는 ‘아산정신’

정진홍 교수는 “요즘 청년들은 헬조선이니 취업난이니 하며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아산께서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라고 물은 뒤, “아마도 ‘자학하지 마라. 너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당시에는 기회가 많았고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대나 어려움은 존재한다. 아산도 그 당시에 어려운 점이 많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이겨나갔다”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산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진홍 교수의 특강이 끝나고 ‘아산서원’ 소개가 이어졌다. 아산서원은 한국의 전통적인 서원과 현대적인 대학교육 시스템을 접목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아산정책연구원과 아산나눔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산서원은 매년 30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인문교육과 문화체험, 봉사활동으로 리더십을 키우고 미국과 중국 등 해외의 유명 싱크탱크에서 인턴 실습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아산서원 소개는 아산장학생 출신으로 서원을 수료한 양명환 동문이 맡았다. 그는 “아산서원에서 공부한 시기는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었다. 도전해볼 만한 과정이다”라며 후배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었다.

특강 일정을 마친 장학생들은 문화 탐방을 위해 경주로 이동했





‘은총이 아빠’로 잘 알려진 박지훈(왼쪽) 씨가 ‘도전과 꿈’을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학생들은 가족의 아픔을 극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은총이 가족’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었다.



‘은총이 아빠’로 잘 알려진 박지훈(왼쪽) 씨가 ‘도전과 꿈’을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학생들은 가족의 아픔을 극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은총이 가족’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었다.

다. 늦은 오후에 도착한 경주는 수온주가 39.7℃에 이를 정도로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다. 하지만 학생들은 불국사와 동궁·월지(안압지)를 둘러보며 서로 어울려 사진도 찍고,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하는 여유를 보였다. 정주연(이화여대 동양화과3) 장학생은 “요즘엔 중·고등학교에서도 경주로 수학여행을 오지 않아서 처음 외뵈었다. 책에서만 보던 불국사가 실제로 보니 더 아름답고 고즈넉해 감동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탐방을 마친 장학생들은 경주 현대호텔에 마련된 저녁식사를 즐긴 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진행은 장학생 모임인 정담회 임원들이 맡았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라 서로 어색했지만, 학생들 스스로 준비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끼를 마음껏 발산하며 서로에게 다가갔다. 친교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새 친해진 학생들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 “아산의 도전정신을 잊지 않겠다”

둘째날 일정은 산업체 견학으로 시작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도착한 학생들은 공장 내부로 직접 들어가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자동차 제작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현대자동차의 역사는 바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역사다. 정주영 설립자는 1940년 스물다섯 나이에 자동차 수리업으로 시작하여 1967년 현대자동차를 설립했고, 고유 모델인 포니를 성공시키며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정주영 설립자는 “자동차는 그 나라 최고의 기술과 최대의 자본을 동원해야 한다. 그 나라 산업기술의 척도이며, 달리는 국기(國旗)다”라

면서 자동차 산업에 많은 애착을 보였다.

이렇게 시작한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브랜드 35위, 자동차 부문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강홍원(한국외대 전자공학과3) 장학생은 “TV에서 보던 것보다 공장 규모가 훨씬 크고, 완성된 차들이 수출용 부두에 끝도 없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고유 모델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리라는 주변의 우려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아산의 도전 정신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자동차 견학을 마친 장학생들은 현대중공업으로 이동해 아산 기념전시실을 둘러보았다. 아산기념전시실에서는 정주영 설립자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역사와 발전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전시실을 둘러본 김동훈(경희대 컴퓨터공학과3) 장학생은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아산이 어떻게 현대그룹을 만들고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했는지 알게 됐다. 현대중공업을 설립할 때 ‘우리는 이미 1500년대에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다’면서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영국의 은행에서 차관을 이끌어낸 에피소드에서는 설립자의 위트와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시실을 나온 장학생들은 버스를 이용해 배를 제작하는 현장 곳곳을 둘러보았다. 20여 층의 아파트 높이인 컨테이너선, 최신 기술이 집약된 LNG선과 드릴쉽, 장학생들이 타고 있는 버스보다 큰 배의 부속품을 들어 올리는 콜리엇 크레인 등 상상을 넘어선 크기와 규모에 장학생들은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극히 일부분만 둘러보았다는 안내직원의 설명에 한 번 더 놀란 학생들은 눈으로 확인한 현대중공업의 웅장한 광경을 잊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 아산장학생이라는 남다른 자부심

산업체 견학을 마친 장학생들은 울산 현대호텔로 자리를 옮겨 ‘도전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특강을 들었다. 강사는 ‘은총이 아빠’로 잘 알려진 박지훈 씨였다. 그는 아들 은총이와 함께 마라톤이나 철인 3종경기에 참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연이 소개되었다. 그는 뇌가 돌처럼 굳어가는 스테지웨이버증후군, 피부병의 일종인 오타모반증후군 등 6가지 희귀 난치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 은총이와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어려움, 이를 극복하며 기적 같은 일들을 해낸 이야기를 장학생들에게 전했다.

박 씨는 “은총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죽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아들과 함께 뛰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내는 철인 3종경기를 은총이와 함께 여러 차례 완주했다. 또한 아들처럼 아프고 힘든 이웃을 위해 모금과 기부 활동을 이어와서 2012년에 아산상 효행·가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민서(한림대 화학과3) 장학생은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고 살았던 것 같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은총이 아빠의 얼굴은 힘든 일을 겪었다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밝고 행복해 보였다. 내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강이 끝난 후 장학생들은 호텔에 마련된 뷔페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인근에 위치한 현대예술관으로 향했다. 울산의 현대예술관은 1998년 문을 연 복합문화센터로 1,000석에 이르는 대극장을 비롯해 소공연장과 영화관, 미술관, 스포츠 시설을 구비한 문화공간이다.

장학생들은 7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시하는 ‘불멸의 화가 반고흐 레플리카 체험전’을 관람했다. 도슨트(전문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고흐의 작품을 새롭게 감상했다.

신정현(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3) 장학생은 “정주영 설립자는 울산에 많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직원들을 위



만남의 장 둘째날, 장학생들은 현대중공업을 견학한 데 이어 현대예술관에서 고흐 전을 관람했다(위부터).

해 주거를 마련해 주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런 문화공간까지 만들어 직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면서 “식막한 공업도시가 아닌 문화와 여유가 넘치는 도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한 점이 놀랍다”고 말했다.

전시회를 둘러본 학생들은 1박2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각자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에서 한 학생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현대예술관 견학과 아산정신 특강을 통해 정주영 설립자의 업적과 도전정신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경주 문화체험과 친교의 시간 등으로 장학생들끼리 우정을 돈독히 했다”면서 “만남의 장을 통해 아산장학생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